

우리 마음의 평화 (2020년 10월 11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골로사이 3:15)

평화의 근원은 지난 강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들은 마르지 않는 근원이신 주님과 친교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골로사이 3:15 참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나 또는 성서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은 육신의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자아를 주도하고, 영적인 삶이 발전하는 곳이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하면 창조주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보물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평화'라는 소중한 보물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순교하신 신앙의 증거자들은 고문당할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평화를 지켰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문 때문에 그리스도를 변절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통해 이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마음의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마태오 15:19)

치명적인 영적 악성 바이러스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는 마음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위험한 상황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처음에는 교활한 생각, 음탕한 욕정, 죄책감을 외면하는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하라는 유혹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눈인 양심은 위험을 감지하고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마음에게 알려줍니다. 깨어있는 양심의 음성이 들려서 마음과 일치하면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마음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평화가 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내면의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모든 희망이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내면의 영적 투쟁으로 영혼의 소용돌이를 끝내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려고만 한다면, 평화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회개한 신자들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의 욕정은 극복되고 두려움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과 인내와 용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강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영원한 내면의 평화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영혼과 양심은 진정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게 되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처럼 삶을 '불운'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기쁨과 성령의 각종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의 환영을 받으며, 자

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분 뜻에 따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를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평화를 쫓아내는 모든 영적 악성 바이러스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리고 생각과 소망과 행동으로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선물인 평화를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시도록 늘 간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청원하는 이 평화는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고, 너무도 중요한데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필립비 4:7)

특히 성찬예배와 각종 예식에서 집전자가 평화를 청하고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여서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같이 기도를 드리고, 열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찬예배에서 집전 사제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혼란이나 불안을 가져오는 다른 생각들은 멀리하며,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시간에 행해지는 예식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여합시다.

그리고 사제가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축복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응답하여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평화의 은총을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이사야 26:12) 아멘